

기고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2020년 경자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로 군민에게 사랑 받는 진정한 민의의 대표 기관이 되도록 화순군의회 의장으로서 앞장서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 화순예술인촌 개판식을 다녀왔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화가들이 작품 활동 등을 하면서 화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공간을 개관하는 행사였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사업이었으며 기분 좋은 개판식 행사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화순에는 많은 문화예술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순은 화순천을 중심으로 한 화순문화권, 지석강과 넓은 평야의 능주문화권, 산이 많은 동복문화권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으로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고 개방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화순의 전체 면적의 74퍼센트가 산으로 이루어진 정도로 많은 산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한 인물의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종화의 태두로 알려진 학포 양평손 선생,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회백, 사상가이며 독립투사이기도 했던 지강 양한숙 선생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화예술인이 배출된 예향의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화순은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문화예술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했던 곳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는 문화예술의 영역이 넓어지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화

순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새해에는 화순의 문화예술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군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 군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아름답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군민여러분!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육십갑자 서른일곱 번째 쥐의 해 경자년은 어느 해보다 살만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흰 쥐는 옛부터 다산과 부지런함 그리고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흰 쥐처럼 부지런하게 군정을 펼쳐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이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이 나시기 바라며, 문화예술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는 신명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은 비탈길 감속방어

비탈길,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사고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운전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자동기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에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비탈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로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사로에 주차할 때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세요. 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뒤에 내리막에서는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오르막에서는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당겨서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임목이나 벽돌을 경사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놓아주세요. 내리막에서는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오르막에서는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셋째,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 바퀴 방향을 다르게 틀어주세요. 경사의 방향에 따라 차량 방향을 반대로 놓아두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더욱 더 안전에 유의하여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백종희 / 무안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훈련소 입소하던 날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로 즉 휴전 상태이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이다. 연일 북한은 핵관련 등 도발 위험으로 남북한 최고조의 긴장 국면을 조성하면서 한반도 급변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인들은 젊음과 청

춘을 희생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남성은 군복무 기간에 학업을 중단하며 취업준비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가면서 군입대하는 이유는 바로 평화만이 사랑하는

부모형제 등 안위를 지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필자도 37년전 입대 모습이 아득거리며 떠오른다.

힘든 훈련과 군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기간이 언제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

는다.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같지만 누구든지 나눠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기에 자랑스럽게 군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현재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의 노고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사히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국중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팀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社說

귀농·귀촌 인기 시들하다니…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여가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6%만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59.3%는 '귀농·귀촌의 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귀농·귀촌의 향이 있다' 비율은 2011년 63.7%에서 2019년 34.6%로 무려 29.1%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농업 인의 73.8%와 도시민의 78.0%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농업인의 81.3%와 도시민의 90.2%가 농업의 중요성에 동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 중 64.2%가 '가치가 많다'고 응답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7년 70.0%에서 5.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기능은 '식량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가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 신고	182	▲ 인광 일코울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긴급전화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호남신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고국 (062) 224-5800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팩스 (062) 222-5547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